



攝
心
實
愛
慈
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사) 48호 · 월간 · 비례표

東友會報

1991年(檀紀4324年)11月21日 第154號(1)

발행인 鄭在哲
편집인 張秀正
인쇄인 金榮魯

東國大學校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2-18

성화빌딩12층

전화 : 733-3991, 3992, 3993

FAX : 733-3992

우편대체 012328-31-0525667

은행지로번호 7500891

本會、
인사동 白象ビル
3층
매입



東國人
의 밤

12월 19일 롯데호텔서

내년 4월말 입주예정

本會는 지난 10월14일 종로구 인사동 소재 白象빌딩 3층을 매입했다.

이번 白象빌딩의 매입은 성화빌딩내의 現동창회사무실이 내년1월16일로 임대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동안 모색했던 母校內 동창회관 건립방안은 南山제모습찾기운동에 따른 건축규제로 사실상 무산되었으며 회관의 부지매입도 서울시 중심가의 대지값이 평당1천만원을 훗가하는 관계로 불가능했었다.

따라서 本會는 신축빌딩내 사무실구입방안을 검토추진해 왔으며 임대계약해지통보 직후인 지난 10월9일 회장단회의의 승인에 따라 백상빌딩 3층을 매입하게 된 것이다.

내년4월부터 동창회사무실로 새롭게 운영될 백상빌딩 3층은 총평수 63.33평으로 매입비용만도 총5억 6,743만원(세금포함)으로 현재 동창회의 확보가능한 예상총액보다 1억8천여만원이 부족해 10만동문여러분의 뜨거운 東國사랑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관련기사 2,3面〉

■ 위치도



이젠 전동문이 나설때

本會, 백상빌딩 매입 募金운동 전개

本會는 인사동소재 白象빌딩 3층을 매입하기로 하고 지난 10월14일 계약을 체결했다.

白象빌딩 3층은 63.33평의 면적에 분양가 5억664만원(평당 8백만원)이며 쿠드세, 등록세, 부가세 추정액 6,079만여원을 합한 총소요비용은 5억6,743만여원에 이른다.

현재 본會가 둔사업으로 집행되어 타운도로 전용하지 않는 장학 및 체육기금 1억4천만원(장학기금 1억5백만원, 체육기금 3천5백만원)을 제외한 상태에서 운행기금과 인명록 6집 상환대금, 임대보증금(現성화빌딩 임대금)을 합친 확보예산은 3억9천여만원으로 총분양비용에는 1억8천여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本會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긴축재정과 함께 전동문이 참여하는 대내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사전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南山체모습찾기에 따른母校내 회관건립의 불가능이나 평당 1~2천만원을 흥가하는 서울시의 땅값을 고려할 때 회관부지마련건과 어렵다는 현실에서 최선의 방안으로 선택된 이번 白象빌딩의 사무실구입에는 그 어느 때보다 동문들의 참여가 절실히 하다하겠다.

會長團會議 열려

本會 1991년도 제3차 會長團會議가 지난 10월9일 鄭在哲회장을 비롯한 文泰植수석부회장, 崔致根상임부회장등 회장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호텔 피코크룸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白象빌딩 3층의 매입을 승인하고 매입 대금 부족부분은 전동문을 대상으로 한 모금운동을 전개키로 하는등 本會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있었다.

임대사무실 시대의 종지부를 찍은 이번 白象빌딩 3층 매입과 함께 전개될 모금운동을 통해 10萬동문의 넓은 저변과 역량을 재결집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배락에서 그 어느 때보다 동문여러분들의 협조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母校재단이사 선임

劉周馨동문



本會
柳周馨
(57농학)
·총동방
적 부회
장 · 사
진)부회
장이 지난 10월10일
타워호텔
에서 열린 제112회
동국학원
재단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됐다.

本會의 추천으로 신임이사에 선임된 柳동문은 본會부회장겸 운영위원회로 평소 母校와 本會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동문이다.

閨총장취임 축하연 개최

ROTC총동문회... 축하폐전달도

▲ROTC
총동문회
(회장=元
容璇·63영
문·본회운
영위원·남
양전기(주)
대표이사)
는 지난 9
월18일 오



▲원용선희장이 축하폐전을 전달하고 있다.

후7시 타워호텔 17층 중국관에서 회장단초청 '모교 閨丙天총장 취임 축하연 및 축하폐전달모임'을 개최했다.

모교 실체장급인사를 포함한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축하연은 同會의 모교에 대한 관심이 지대함을

'제20회 東國人의 밤'이 오는 12월19일 오후 6시30분을 지나 입구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 볼룸에서 개최된다. 해를 거듭해 올수록 경향각지의 많은 동문이 참석해 10만동국인의 우의와 결속을 다지고 내일의 영광을 다짐하며 모교애와 동국인의 긍지를 드높여온 큰 잔치인 東國人의 밤은 올 한해동안 사회 각계에서 활약, 동국의 명예를 떨친 동문들의 축하연도 겸해 벌어지게 된다.

이번 東國人의 밤은 鄭在哲회장을 비롯해 崔致根等총무처장관, 崔炯佑정무장관동 정계, 관계인사와 文泰植수석부회장 등의 재계인사들, 백발성성한 선배동문들로부터 신임동문 까지 명실상부한 대동단결의

세场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東國人의 밤은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에 의해 당선된 초기 광역의회 의원동문들도 모두 한자리에 초청할 예정이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국 2백여 지부, 지회, 직장동우회동과 本會, 임원들께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행정장이 터진나간 만큼의 대성황을 이뤘던 東國人의 밤이 장소를 롯데호텔로 옮긴 올해 더욱 더 큰 성황을 이루기 위해 치밀한 사전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무엇보다 동문각개인의 참여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本會운영위원회 보강

鄭在皓동문



本會
운영위
원회에
鄭在皓
(62정치
·한국주
택은행
전산부
장)동문이 새 운영위원회로 영입됐다.

이번에 새로 영입된 鄭동문은 지난62년 모교 정치과를 졸업한 후 주택은행 동경사업소장, 산곡동 지점장, 인천지점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융통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동안 본회이사로 모교 및 본회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受東國人이다.

한편, 鄭동문은 당시로 회비 2백만원을 본회에 납부했으며 이로써 본회운영위원회는 현재 총 33명이다.

행운상품 협조 안내

東國人의 밤은 同門여러분이 스스로 참여하는行事입니다.

東國人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날, 그 기쁨을 모두가 나누어 가지기 위해 '東國人의 밤' 행사는 협찬금 및 행운상품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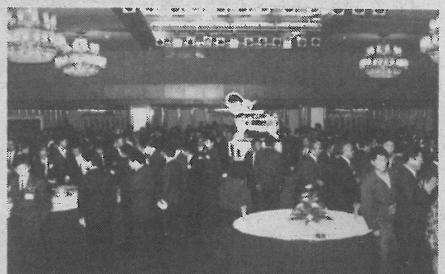
-아 래-

- 협찬내역: 행사상품이나 협찬금
- 협찬방법: 本會를 방문하시거나 지로를 통한 입금 (本會로 전화연락주시면 방문수납 하겠음)

※ 열화와 같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올 東國人의 밤 12월19일에



▲사진은 지난해 東國人의 밤.

東友漫評 鄭雲耕



◇ 화관 건립 기초되며 성원을 기대

올해도 12월19일에 만납시다

제 20회 東國人의 밤이 열립니다.

10萬 東國人이 한자리에 모여 재회의 기쁨을 나누며 東國의 燦光을 다짐하는 「제 20회 東國人의 밤」이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방의회에서 맹활약중인 기초·광역의회 의원동문들이 대거 참석하는 명실상부한 축제의 场이요, 화합의 场이 될 것입니다.

-아 래-

- 행사일시: 1991년 12월 19일(목) 오후 6시30분
- 행사장소: 입구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 볼룸
- 회비: 2만원

* 기타 의문사항은 本會事務局 (Tel 733-399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각급 同門會 모임 活潑

體育大會·定期總會 등으로 友誼 다져

嶺南 지역 體育大會

'제8회 영남지역 동문 체육대회'가 지난 10월 20일 모교 경주캠퍼스 체육관에서 주최자인 대구지회동문회(회장=崔慶植·62정치·대광화석(주) 대표이사)를 비롯 경주, 울산, 포항동 각지의 동문, 가족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전의 체육대회를 마친 후 점심을 먹고 장기자랑으로 이어진 이날 모임은 모처럼 재학시의 동국인으로 되돌아간듯 쇠션을 다하는 진지한 모습으로 동문애를 더욱 돋구히 했다.

영남지역 동문들로 성황을 이룬 이날 체육대회에 본부에서는 張秀正 사무국장이 직접 참가 50만원의 격려금과 10만 원상당의 운송상품을 전달해 분위기를 한껏 돋구었으며 각 지부에서도 저마다 준비해온 음식과 술을 서로 권하며 동국인 특유의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忠南지부 체육대회

대전·충남지회(회장=김기종·53경체)는 지난 11월 3일 오전 10시 대전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제8회 동국인 체육대회'를 갖고 동문들간 우의를 다졌다.

회장인사, 경기진행, 임원소개, 시상식으로 이어진 이날 체육대회에서 황희정은 인사말을 통해 '한발빨라 헝겊세메이리치는 온하루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속에서 동문상호간 우정을 나누자'고 말하고 '너나 할것없이 우리 동문 모두 힘을 합친다면 저희발전은 물론이고 모교도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東國人의 우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惠東會, 정기총회

▲惠東會(회장=李殷載·52.



▲사진은 嶺南시 지역체육대회 배구경기장면

혁성운수(상장)는 지난 9월27일 오후6시 영동 강호부페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모임을 가졌다.

시종일관 회기애에 한 분위 기속에서 진행된 이날 모임은 연말에 부부동반으로 송년모임을 가질 것 등을 결의했다.

마당회, 회장단회의

▲동국미당회(회장=李武雄·67불교·본회 상무이사·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사무총장)는 지난 9월 30일 오후7시 잠실 소재 대교에서 10여명의 동문이 모인 가운데 회장단회의를 갖고 동문회 발전방안 등 을 논의했다.

강서지회·송년모임

▲강서지회동문회(회장=吳承泰·63경체·스카피닉스대표)는 오는 12월 9일 오후6시 보무성에서 송년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성북지회 정기모임

▲성북지회동문회(회장=金光鎬·69경행·본회이사·강화전설대표)는 지난 10월 29일 오후7시 정북동 칠곡수집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동문상호간 우의를 다졌다.

造景學科 송년회

▲조경학과동문회(회장=오희영·80조경·현대산업개발대학원)

▲이종관=강남구 역삼동 648-23 대홍B/D 1304호 렉카제생(주)이사

▲이태경=서초구 서초2동 세종APT 302호

▲이현술=성동구 자양2동 664-29

▲전원길=성북구 석관2동 338-108

▲전원박=성동구 성수동 1기1동 189

▲전찬홍=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APT 10동201호

▲허갑수=대구시 남구 대명 7동 2250-35

▲홍석강=母校 수학교육과 교수

▲황현주=강동구 길2동 327-12

▲평택지부

▲문석홍(59생물·회장)=평택시 황정동 736-8

▲조동열(60국문·부회장)=평택군 평성읍 평궁리 238

▲오상열(64법·부회장)=평택시 평택동 23-3

▲송승만(66농경·부회장)=평택시 평택동 64-24

▲김승고(61농학·강사)=평택시 평택동 72-6 동신사 대표

▲이종석(82미술·총무)=평택시 평택동 55-7 상아탑 대표

▲서재하(65국문)=평택군 평성읍 남산리 산69

▲공정렬(52사학)=평택군 안중면 현화리 127

▲한용우()=평택시 비전동 309-8

▲정병화(59생물)=평택시 합정동 309-4

▲권창호(60경제)=평택시 비전1동 621-5 하애빌라 5동 205호

▲이조업=평택시 합정동 766-16

▲이철호(61법학)=평택시 비전동 604-5

▲이승희(62영문)=평택시 비전2동 251-5 평택APT 나동 202호

▲안강수(63경제)=평택시

회관건립의 출발선에서

東友斷想

사람들은 혼히 '선의 피해'라는 말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말 그대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된다는 얘기입니다.

년초 서울시가 정부에서 추진한 환경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남산 제모 습찾기운동을 전개시키고 하고 市산하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하여 1백인 위원회를 두고 각종의 안을 심의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푸른 남산을 찾기 위해 부적절한 각종 대형건물을 점차 철거하거나 남산 구역내 모든 건축을 규제한다는 것은 1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합리적 판단이었다는게 誓입니다.

그것은 사실 동창회의 입장에선 날벼락 같은 것

으로 지난해 母校에나 동창회관을 건립할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母校측의 의사는 호의로 끝나고 만었습니다.

母校가 南山구역내 위치한 관계로 어떠한 建築도 규제된다는 조항때문에 이제는 부지가 있어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선의 피해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會館을 건립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온 本會가 母校에 건립이 불가능해진 이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건립부지를 알아보기

위한 기본조사에서도 서울시내의 부지값이 최소 평당 1~2천만원을 훙가하는 상황이니 本會에 상 업무를 벌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창회관을 가질려면 최소 대지 1백평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부지비내용만도 10~20억을 상회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本會가 각종 기금을 합한 총 예산이 5억여원인데 반해 부지값을 염청나게 비싸고 그나마 장악이나 母校체육활동을 지원해야 할 기금을 제외한 本會의 재정으로는 부전부지확보 계획은 무리였던 것입니다.

10월9일 열린 회장단 회의는 이와같은 모든 문제점을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폐지침 白象빌딩의 3층 매입을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임대사무실이 아닌 우리의 사무실란은 의미도 충분히 있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이었다는 점은 아마도 동문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정도 白象빌딩 3층 사무실 매입이 쉬운일은 아닙니다. 충분량비용에 1억8천여만원이 모자라는 상황이지만 임대계약이 해지되는 현상황에서는 단 하나의 해결책이 있으며 10만동문의 저력을 보아 1억8천여만원의 부족한 액수를 내년4월 입주시까지 놓히 해결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張秀正(本會사무국장)

15일 타워호텔 본관 1층 레스토랑에서 '91년 제2차 정기이사회 겸 지방의회의원당선 축하모임'을 가졌다.

합정동 758-15

▲김형상(77토목)=평택시 통복동 83-1

▲김선종(78체교)=평성읍 남산리 69

▲장익선(78물리)=평택시 비전동 진성APT가동101호

(신라교의(주) 동문회)

주소: 서울 송파구 석촌동 286-7(Tel 417-7171)

▲이인근(71법학)=섬유사업부 부부장

▲이치우(84경영)=구미부부장

▲이석호(84행정)=경영관리실 과장

▲이은동(85회계)=총무부 대리

▲이규상(86무역)=섬유사업부 대리

▲김재구(85무역)=섬유사업부 대리

▲박동현(85행정)=경영관리실 대리

▲윤석원(87정외)=총무부 대리

레슬링 世界선수권서 優勝

그레코로만最初 權德龍동문

▲權德龍
(86체조·성
신양회소
속) 동문이
지난 9월
30일 열린
91세계그레

코로나전형 레슬링선수권대회
48kg급 결승에서 이란의 침카
레자에게 경기종료 11초를 남

古稀 출판기념법회
李外潤 동문

▲李外潤(50불교·한국불교
교회원 총재) 동문은 지난 11
월 3일 오후 5시 30분 롯데호
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불
교사회에 걸친 남을 '불교설
화대사전'을 발간 고회 출판
기념법회를 가졌다.

국제아카데미賞에
徐京保 동문

▲徐京保(51불교·일봉선교
종종) 동문은 지난 10월 16
일 매년 세계적으로 평화와
인류에 공헌한 불교계인사에
게 수여하는 국제아카데미상
수상자로 선정돼 일본으로 떠
났다.

中國文化강좌

정재각 前총장

▲정재각 前총장은 지난 10
월 12일 오후 3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불교방송 공개
홀에서 '중국-중국문화'를 주
제로 다보문화강좌를 가졌다.

會費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會員費(단
위 : 단원)

▲이연학(61법학)=50

◆회원50만원

◇常務理事費(단
위 : 단원)

▲민경봉(64법학)=20

▲송석원(68총학)=20

▲조종현(65경제)=20

▲이종우(59법학)=20

▲심춘섭(61정치)=20

▲김지숙(60법학)=20

▲김홍모(66상학)=20

▲김시일(63정의)=20

▲이종훈(56법학)=20

▲이종민(53정계)=20

▲이상운(60정치)=20

▲문영일(58정치)=20

◆회원240만원

◇理事費(단위 :
단원)

▲전창원(57경제)=7

▲백영철(62법학)=7

▲김종일(58법학)=7

▲김구진(67사학)=7

▲이창억(52정치)=7

▲이경범(69경행)=7

▲하영태(58법학)=7

▲정민용(49문학)=7

▲윤두옥(63농생)=7

▲권기종(64불교)=7
▲민홍기(72법학)=7
▲이길웅(62경제)=7
▲윤수정(70경제)=7
▲김복철(62정치)=7
▲김영종(63상학)=7
▲이상돈(86한의)=7
▲이상돈(86한의)=7
▲한정희(67농학)=7
▲오진모(61법학)=7
▲유무열(89경원)=7
▲조한남(70식공)=7
▲김용정(59철학)=7
▲이영창(58법학)=7
▲정호진(60경제)=7
▲남도영(52경제)=7
▲김목(69경영)=7
▲원유형(67영문)=7
▲정기용(62정치)=7
▲김덕경(80경행)=7
▲민병진(62정치)=7
▲신수길(67경제)=7
▲최인규(75식공)=7
▲이온감(74경영)=7
▲황성열(78경제)=7
▲김구진(62국문)=7
▲이왕호(64국문)=7
▲현혜천(75원행)=7
▲조향태(63법학)=7
▲정석승(63상학)=7
▲한운섭(85경원)=7
▲유두옥(63농생)=7

◆年會費(단위 : 만
원)

▲이달상(64임학)=1
▲손근익(84건축)=1
▲송기원(74부역)=1
▲윤천익(69경제)=1
▲전찬우(58정치)=1
▲김동화(88경제)=1
▲최수영(69경제)=1
▲김수현(69법학)=1
▲조성립(61사학)=1
▲권광옥(72건축)=1
▲진도종(64경제)=1
▲이종훈(84회계)=1
▲서성식(81학원)=1
▲이영순(64상학)=1
▲김상동(59법학)=1
▲박태완(68의학)=1
▲이영연(63경영)=1
▲박기생(69법학)=1
▲임상은(57철학)=1
▲김 실(62인학)=1
▲김구규(69경영)=1
▲김정의(67경영)=1
▲배영민(72식공)=1
▲최강화(60경제)=7
▲김종희(55영문)=7
▲이현우(85교원)=7
▲임덕규(60법학)=7
▲임덕규(60법학)=7
▲임상은(57철학)=1
▲김만연(62정치)=1
▲유동우(59경교)=1
▲이태한(73경영)=1
▲이태수(73경영)=1
▲민병인(65경원)=1
▲이부승(67경계)=1
▲한경석(58법학)=1
▲순양천(52경제)=1
▲김선재(69법학)=1

장) 동문은 지난 10월 23·24일 제주도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제18차 한일부 동산교류 세미나에서 '제주도 관광개발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佛經강좌 개최

陸楨培 동문

▲陸楨培
(62불교·모
교 교수) 동
문은 지난 25일부
터 매주 희
·목요일 서
로 결정됐다.申동문은 '농부' 아래 생동하는 현실언어로 민중정서의 새지평을 열어온 바 있다. 수여식은 오는 11월 23일 오후 5시 경북포항시오션파크호텔 2층에서 열린다.

提이위
本
有
人
的
事
實
近
況
諸
事
主
道
主

춘강문창기금수해

中庚林 동문

▲申庚林
(59영문·시
인) 동문이
제4회 춘강
문예창작기
금(3백 만
원) 수해자

기고 극적인 퇴장술을 거두며
김격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국의 레슬링시상 그레코
로만형레슬링이 세계를 제패
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권동
문은 지난 84년 모교재학시
국가대표로 뽑힌바 있으며 중
학교 1학년때 레슬링과 인연
을 맺은후 미트인생 16년만에
세계무대를 정복했다.

佛教학술연구회 개최

李載昌 동문

▲李載昌
(58불석·모
교 교수·한
국불교학회
회장) 동문은 지난 11
월 1일 오

전10시 모교 동국관(L101)에
서 제17회 전국불교학술연구
발표회를 개최했다.

석재10주 학술대회

金長好 동문

▲金長好
(58국문·모
교 교수·한
국문학연구
소장) 동문은 지난 10
월 11일 오

후2시 문예진흥원 강당에서
故석재 조연현의 10주기를 맞
아 '석재 조연현의 문학과 문
학연구'를 주제로 한 제11차
한국문화학술회를 개최했다.

학술심포지엄 열어

韓相範 동문

▲韓相範
(58법학·모
교 교수·교
수불자연합
회 회장) 동
문은 지난

15일 모교

에서 「불교이론과 종교사회
학」을 주제로 제4회 추계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일본 龍谷대학과 공동으로
갖는 「제2차 한일 불교학술대
회」이기도 한 이날 심포지엄은
불교와 현대의 정치이론, 경
제사상, 가족이론등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不動產 교류회의

吳鎮模 동문

▲吳鎮模
(61법학·본
회 이사·국
토개발연구
원 연구워
크·대한부
동 산학회

을 가락동 소재 건설포교원에
서 강좌를 연다. 천수경과 근
본불교를 강의하게되는 瞳동
문은 송파지역 주민을 위해
상담시간도 마련한다.

인쇄문화협회장에

朴忠一 동문

▲朴忠一
(62법학·본
회 상무이
사·신홍인
쇄(주) 대표
이사) 동문
은 지난 9
월 17일
인쇄문화회관에서 2
천년대를 향한 범 인쇄업계
각종 협력단체의 연합체인 대
한인쇄 문화단체협의회 총회
에서 만장일치로 同會 회장에
피선됐다.

朴동문은 지난 9월 13일 한
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총회에
서 감사로도 피선된 바 있다.

▲김원수(81국문)=1
▲오희숙(86지교)=1
▲정순봉(59법학)=1
▲문광식(64경제)=1
▲심광식(77행정)=1
▲손덕영(70법학)=1
▲정동현(69영문)=1
▲노경구(67경영)=1
▲이선규(64법학)=1
▲김기익(70정경)=1
▲이준복(59불교)=1
▲이중곤(64임학)=1
▲정중현(64임학)=1
▲오정희(72경영)=1
▲신계식(57국문)=1
▲안학승(63법학)=1
▲김문식(경원)=1
▲박상철(62국문)=1
▲심현칠(65경제)=1
▲신법철(62물리)=1
▲윤석균(58영문)=1
▲허성구(80경원)=1
▲이정곤(58법학)=1
▲조준희(87화공)=1
▲이중협(59법학)=1
▲조돈인(62법학)=1
▲고훈원(62법학)=1
▲박상우(74경행)=1
▲이영우(82경원)=1
▲심현칠(65경제)=1
▲최영식(89원예)=1
▲정병길(80원예)=1
▲현승찬(70경행)=1
▲성순경(91대원)=1
▲이민우(59경제)=1
▲김경식(63경세)=1
▲안규섭(82건축)=1
▲김윤식(경원)=1
▲박태완(68의학)=1
▲이영연(63경영)=1
▲박기생(69법학)=1
▲임상은(57철학)=1
▲김 실(62인학)=1
▲김구규(69경영)=1
▲김정의(67경영)=1
▲배영민(72식공)=1
▲최강화(60경제)=7
▲김종희(55영문)=7
▲이현우(85교원)=7
▲임덕규(60법학)=7
▲임상은(57철학)=1
▲김만연(62정치)=1
▲유동우(59경교)=1
▲이태한(73경영)=1
▲이태수(73경영)=1
▲민병인(65경원)=1
▲오정록(76수교)=1
▲조태옹(81경원)=1
▲박미영(88경행)=1
▲강동엽(68국문)=1

모교의과대 慶州 병원 개원

17개과 3백병동 최첨단기기 갖춰

불교의 자비정신에 입각, 양질의 의료시혜와 우수한 의료진 양성으로 질병없는 극락 정토를 구현하고자 지난 88년 10월 착공한 모교 경주캠퍼스 이과대학 부속병원이 착공 3년여 만인 지난 10월 22일 오전 9시 개원, 진료를 시작했다.

경주 지역 최초의 대학병원인 모교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재활시설, 요양 및 연구기능을 갖추고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가정의학과 등 17개과 84실 3백22병상의 규모로 개원됐다.

이날 개원된 병원은 총부지 4만3천2백76.8평에 건평 5천7백1평의 지하1층 지상7층의 구조로 총소요자금 2백3억5천1백74만3천원이 소요됐다.

주요 의료기기로는 전산화 단층 활영기, 초음파 활영기, 자동생화학 분석기 수백종의 최첨단 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92년 말까지 치과, 성형

외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등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번 부속병원의 개원으로 동국의료원은 한의내부속 경

주 한방병원, 의과내부속 포항병원, 동국한방병원등 총 4개 병원의 규모로 발전하게 됐다.

學校債 4억8백여만원에 그쳐

목표의 27.6%… 적극참여 아쉬워

모교당국이 지난 5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발행한 2차 학교채권발행·총액이 2억6천7백7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모교의 교육재정 확보의 자구책으로 마련된 학교채권은 1차합계 1억4천1백20만원을 합쳐 총계 4억8백90만원이 되었으나 이 총액은 충실히 목표액인 14억8천만원의 27.6%에 불과해 전동국민의 참여가 절실했다.

채권구입자는 교직원, 대학원생, 동문이 대부분이며 학부모들은 1·2차 합쳐 4백66명

기준에 1백60명선에 그쳤으며 매입액은 총액의 2%선으로 일려졌다.

이에 학교측에서는 전동국 인들의 학교채권입 활성화를 위해 1인1구좌파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고보조 3억2천만원

91년 사립대학 시설비 확충 국고보조금으로 모교에 3억2천17만1천원이 책정됐다.

지난 10월 31일 모교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 가운데 도서구입비는 1억1천6백22만7천원, 실험실습비는 2억3백4만4천원으로 밝혀졌다.

실험실습비는 지난해 경주캠퍼스 기초과학센타기자재 구입에 사용함에 따라 올해는 전액이 서울캠퍼스에 책정됐다.

한편, 이번 국고보조금액은 지난해 2억3백16만5천원보다 1억7천백만 6천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도서관 모범이용상 등 시상

모교 서울캠퍼스 종양도서관(관장=홍영복·사학과 교수)은 독서주간을 맞이하여 지난 9월 27일 오전 11시 총장실에서 '제3회 도서관 모범이용사 및 봉사상'을 시상했다.

수상자는 모범이용상에 ▲ 박지연(물리2) ▲ 김상수(식공2) ▲ 윤정우(화학3) 등 2명이며 봉사상으로 ▲ 신동원(회계3) ▲ 윤동 총 3명에게 수여됐다.

내년도 신입생 90명 增員

오는 25일까지 원서접수

모교당국은 92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확정, 지난 11월 7일 공식발표했다.

이번 입시요강에 따르면 모집인원부분에서 서울캠퍼스 전기 1천7백10명, 후기 5백60명 등 총 2천2백70명과 경주캠퍼스 전기 1천6백50명등 서울·경주 총3천9백20명으로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기계공학과(정원60명) 신설, 전기전자계열에서 전자공 20명, 전기공 10명 등 30명이 증원돼 90명이 늘어난 것이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불교 대 선학과가 일반학생 10명, 승려학생 10명으로 분리사정 ▲예체능계 연극영화학과 설기고사 접수반영, 비율이 20%로 축소 ▲예체능계설기 고사

를 학력고시이전에 실시 ▲경주캠퍼스 전학과 전기고집전 형등을 할 수 있으며 공과대학 전자계산학과는 컴퓨터공학과로 명칭이 변경됐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전·후기 분할모집학과는 범대학, 시과대학, 경상대학, 공과대학 등 4개단대 28개학과로 지난해 6개단대 28개학과에 비해 축소되었으며,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야간의 주간흡수계획은 교육부의 주·야간 통합불허방침에 따라 각자 분리모집한다.

입학원서 교부는 지난 19일

부터 오는 25일까지, 원서접

수는 오늘(21일)부터 오는 25

일까지 체육관에서 실시하며

예체능계설기고사는 내달 10

일부터 13일까지 치뤄진다.

생일이면 떠오르는……

新羅명과

"실속있고 품위있는 선물을 원하십니까?"

소비자 상담실 863-4040

대표 이사 홍평우 (70 경영)

■ 西独 보쉬 純正品
연료절감

■ 에진출력증가/수명연장

■ 액터링

현대·대우·기아全車種

BOSCH SUPER
Cu-Electrode
Thermo elastic

수입원: 洋陽商事 (대표: 沈載錄·65경영)
TEL: (02) 213-1392/3107 아프터서비스 244-0997

冬季 에베레스트 원정나서

本會, 원정대에 격려금 지급

李仁禎(71무역·본회이사·한국대학산악연맹회장) 등문을 단장으로 모교출신동문 및 재학생 총 11명으로 구성된 '91 ~92 한국 등계에베레스트원정대'가 지난 10월 28일 대학 단일팀으로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등정에 나섰다.

수년전부터 에베레스트 원정을 계획·추진해온 결과 이번 등정에 나선 원정대는 네 팔 히말리야의 해발 8,848m의 에베레스트봉을 남봉루트를 통해 등반하게 된다.

지난 57년 창립된 모교 산악부는 1백여명의 산악인을 배출, 대학단일팀으로서 마니날루(해발8천1백56m) 등정을 비롯, 89년 히말리야 랑탕리(7천25m) 등계 초등등의 뛰어난 활약을 해 오고 있는데 이번 원정대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단장=李仁禎(71무역) △대장=金廣鎮(73경제·부국상호신용금고 근무) △동반대장=李泰根(71무역) △부대장=吳承教(73경제·부국상호신용금고 근무) △동반대장=李東范(71무역) △부대장=金廣鎮(73경제·부국상호신용금고 근무) △장학금을 전달했다.

考試學술에 장학금

본회는 지난 10월 25일 모교 고시학사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고시수험생을 격려하기 위한 장학금수여식을 가졌다.

본회 최치근(49문화) 상임부회장, 이순웅(58법학·모교교수·고시지도위원회 지도교수) 등이 참석한 이날 수여식에서 본회는 李동문에게 5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李泰根동문 1백만원 喜捨

한민족체전 참석 차 母國訪問



▲이태근동문의 특별회비 전달장면

지난 9월 열린 한민족체전 미국선수부단장으로 모국을 방문한 '이태근동문환경회'가 지난 9월 24일 오후 7시 잠실소재 대호정에서 本會 張秀正(63경제·본회이사·스키 피닉스 대표)·李承吉(63경제·본회이사) 등동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李承吉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환영회는 참석 동문들의 인사말과 고사제창 등 시종일관화기애에 한 분위기속에서 치뤄져 '小동국인의 밤'의 인상을 주었는데

이날의 주인공인 李동문은 지난 58년 모교 정의과를 졸업한 후 동대학원을 거쳐 70년 초반까지 대학강단에 선 바 있으며 그이후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모교 및 본회발전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李동문은 매년 本회를 방문해 특별회비

를 내고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는데 이날 모임에서도 특별회비로 선뜻 1백만원을

本會 張秀正국장에게 건네 줘 참석 동문들로부터 큰박수를 받기도했다.

母校愛 發휘

1萬원의 年會費 납부에서

同門여러분이 내주시는 1만원이 奨學과 本會事業의 밑거름이 됩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편지를 있으시길 바랍니다.

1회 비 내 역 —

○ 일반회비… 1만원 ○ 이사회비… 7만원

○ 감사… 20만원 ○ 상무이사… 20만원

○ 지도위원… 20만원 ○ 부회장… 50만원

○ 회장… 100만원 ○ 회… 100만원

보내실 곳 : 각은행 지로번호 7500891

우편내선 제 012-328-31-052566/

東國大學 總同窓會 事務局

"고수의 금융상품 안내"

□ 최고 수익률의 중개어음! 자유CP!

□ 시중 실세금리 반영 CD!

□ 입출금이 자유로운 고수의 CMA!

확실한 투자 행복한 미래
대한투자금융

*본점: 서울내거리 대표: 77-9000, 평택지점: 777-1401
**영업점: 柳在善(70농경·ROTC8기)

모교 동문 및 재학생 6명으로 구성된 동굴탐험연구회 '91미대륙 횡단원정대'가 지난 7월부터 40여일간 미국을 일주하면서 칼스베드, 맘모스 등 세계의 동굴을 탐험하고 돌아왔다.

미국의 26개 주를 통과하는 총 연장 1만7천km의 대장정 일주코스를 성공리에 마친 이번 대회원은 동국의 궁지를 한껏 드넓은 또 하나의 거제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에 본면에서는 당시의 상황과 감회등을 간단히 소개한 이현필(88토목)동문의 글을 싣는다.

(편집자)

자연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과 탐구력을 역사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인간은 자연이라는 대상을 통해 변화의 미를 느끼고, 또 그런 화석에서 습기계를 적용해가며, 자연과의 적극적인 관계를 통해서 삶을 보다 더 풍요롭게 하고 완전성을 지향하는 것이 이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과제가 아닌가 싶다. 이러한 인식하에 거대하고 응축한 자연환경에 쉬어 앉은 물뚱어리를 내던지고 위대한 대자연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과 그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을 확인관찰하면서 자기존재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탐구를 위해, 본동굴탐험연구회는 20여년간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졸업생 3명, 재학생 3명으로 대륙횡단 원정대를 구성하여, 미대륙의 동서남북횡단, 미대륙 동굴조사 및 관광동굴실태조사 대자연탐사 및 생태계 보존대책조사, 콜로라도강 Rafting 예비답사, 탐험영역의 확대, 인디오문화조사와 같은 목적으로 이번 대륙횡단을 실시하였다.

미주대륙은 거대하고 응축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원주민인 인디언문화와 이주자인 서구문화가 특이한 형태로 결합되어 발전해왔고, 대서양, 사막, 산지, 고원, 평야 등 자연의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는 900만km의 거대한 땅덩어리이다. 4톤의 회화유를 소모해야며 펼친 20,000km의 대장정을 짚은 지면으로 설명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不屈의 東國정신, 美 동굴탐사

동굴탐험연구회, '91美 대륙횡단을 마치고

다. 두려움, 설레임, 그리고 강한 의욕이 뒤범벅이되어 40°C가 넘는 뜨거운 템파리에서 도 땀한 방울을 흘리지 않는 메마른 사막을 질주하며, 100여년동안 탐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자체를 벗기지 못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도 긴 530km의 세계최장동굴인 맘모스동굴과 미국내에서 두세번째로 긴 124km의 jewel의 동굴과 82km의 wind 동굴을 탐험하였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로 알려진 뉴멕시코주에 위치한 Carlsbad동굴에서는 동굴에 빛을 들어놓는 순간, 천장위에 빠르게 자리하여 쏟아질 것 같은 100여평 규모의 종유석무리가 동굴의 수호신처럼 살아 숨쉬고 있어, 몽롱한 기분을 느끼게 하였다. 50°C가 넘는 죽음의 계곡인 Death Valley사막에서는 엔진의 과열로 수시로 냉수로 엔진을 쇠해가며 어렵게 통과하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LuRay관광동굴에는 한

가엔 대평원의 초록이 햇빛을 받아 아름답게 춤을 추다 갑작스런 참혹함이 개념의 신비로움을 어우선하게 만든다.

미국은 동물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지만은 도로가로 뛰쳐 나오는 사슴들이 지나는 차에 죽음을 당하는 것을 자주 본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

다. 아리조나주의 서북부에 있는 이그랜드캐년은 3~10억 년의 긴 세월동안 콜로라도강이 빙하시대로부터 대지를 침식하여 만든 전장 450km, 폭 6~29km, 깊이 1천6백m에 이르는 대협곡이다.

그랜드캐년은 남록(South Rim), 북록(North Rim), 협곡



▲ 사진은 그랜드캐년입구에 선 원정대.

죽음의 계곡건너 암벽등반·곡예탐사

차량도난, 時差등 어려움 극복

국인 관광객이 줄지어 방문을 하지만은 영어와 일본어판 팜플렛만 비치되어 있어, 담당자와 협의하에 한글판 안내서 제작을 하기로 하여, 앞으로 계속 진행될 국내외 전관광지에 대한 한글판 안내서 제작의 시발점을 만들었다. 또한 미국에는 20,000여개의 동굴이 산재해 있는데 세계적인 동굴 단체인 NSS(The national Speleological Society)와의 정기적인 합동 탐험에 대한 협의로 국내동굴에도 커다란 활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랜드캐년을 향하는 도로

넓수 없다. 예쁜 새끼사슴이 차에 치이 불쌍히 내버려져 있는 모습이 그랜드캐년의 응장함과 묘한 대조를 이룬다.

그랜드캐년의 각전망대에서의 조망은 침식에 의해 자연의 위대함을 최대한 느낄수 있게 하고, 멀리 보이는 그랜드캐년의 운치는 산만한 시평선의 단조로움에 부착할 수 있는 모든 악세사리를 치장한 듯 현란한 모습을 뽐낸다.

미국인들이 평생에 한번은 방문하는 관광지가 세군데 있는데, 자유의 여신상, 디즈니랜드, 그리고 그나마지 하나

내부(Inner canyon)로 대별되는데, South Rim에서 보는 장관이 가장 환상적이다.

미국의 인디오문화에 있어서 콜럼부스가 미대륙발견 당시 인도의 일부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원주민을 인디오(스페인어로 인도인이라는 뜻)라 불렀으나 후에 본래의 인도인과 구별하기 위해 아메리카인도인 즉 아메리칸 인디언이라 불리고 있는데 현재 아피치족, 스족, 통가와족, 사이언족, 푸에블로족, 나바호족 등 300여 부족의 40여만명이 보호구역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미국의 카우보이는 스페

체신부 通信工事면허업체

批字電子通信公社

TEL: 273-4048 (代)

- 각종 通信設備 유지 보수
- 각종 通信機器 제작 및 설치
- 전자식 자동교환기 및 키-폰
- FAX·TELEX, 인터폰, MDF설치
- 컴퓨터 및 SOFTWARE 용역

대표 趙 樞 煥 (74경영)

중구 을지로 4가 315-1 무광BD 510호

회費...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조화환·화분, 동·서 양난 <도매가
격 판매 전문업체> 한통화의 전화로
원하시는 곳 원하시는 시간에 정확
히 배달해 드립니다. • 전국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
진로유통 • 꽃도매 상가

TEL, (대) 521-3900
(야) 521-3838

서 일 화 원
김 인 택

을 짓는 일이란...

적어도 1,500여가지의 독립된 사항의 균형있는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축적된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두고두고 만족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집짓는 번거로움을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注文住宅·計劃·施工

三共建築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45-21

전화: 517-2651~5

FAX: 516-2450

代表: 흥의 표(80건축)

韓國現代詩의 고향未堂

花蛇集 출간 50주년기념 詩祭열려

동국시백을 대표하는 未堂 徐廷柱(35중불) 동문이 그의 처녀시집인 '花蛇集' 출간 50주년을 맞았다.



지난 10월 24일 오후7시 동승아트센터에서는 '화사집' 발간 50돌을 맞아 미당 서정주

未堂詩會를 중심으로 재조명 활발

未堂初期作...콤팩트디스크化

시인의 시업을 기리는 '詩祭' —나를 키운 것 팔할이 바람이다가 열렸다.

미당시회(회장=박재삼)가 마련한 이날시제는 동문 및 문인, 문화예술인 및 시호기기동 8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낭송, 춤, 가요 및 꾸며 흥상제 막식등으로 꾸며졌다.

5공시절 현실과 영원을 함께 수용하는 그의 시정신을 '大肯定'으로 용변한 체제 옹호적 '자세로' 인해 未堂은 시대의 '罪人' '天罰'로 비난받아

야만했다.

그러나 문학예술을 회생해 가며 정치·사회쪽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었던 80년대를 보니 정치도, 예술도 없는 때 빠진 90년대를 비라보는 요즘 문단에서는 조용히 未堂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花蛇集' 출간 50주년을 맞아 최근 문예지들이 未堂詩를 재조명하기 시작했으며 문인·예술가·언론인·일반독자 등 未堂詩 애호가 10여명은 지난 10월 3일 未堂詩會 운영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불운한 근·현대사를 끊고 나를 살아남게 만들었습니다. 오로지詩를 통해서만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도대체 새로운 매력없는 삶이란 살아갈 수 없겠지요'라며 그의 시평을 밝힌다.

이미 전에 한 일들을 되풀이 하는 것이 매력을 못주듯 쓴詩들을 되풀이 쓰는 것도 재미없다면 곧능에서 영혼, 전통에서 전위까지를 치달으며詩의 편력을 보여 '未堂이 곧 한국현대詩史면서도 한국시의 정수'라는 평을 듣는 徐동문은 세계사를 열심히 공부해 내년쯤 또 보따리를 쌈 계획으로 있다.

新刊안내

수필집 출간

▲李秉東(57임학·모교교수) 동문이 최근 '진짜로 강한 사람은'이라는 수필집을 내놓았다.

시민대학에서 시민윤리강의, 가정윤리특강, 교양강의 내용을 토대로 필자의 교직생활 30년의 경험을 충당라해 살아가는 저력을 선보인 이 책은 한마디로 부모는 자식을 자식을 잘길리야 장래가 보장되듯이 우리 모두가 질서를 잘지키는 '진짜로 강한 사람'이 되어 발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집 「벼랑설에 핀꽃」

▲송동균(58국문·시인) 동문의 제7시집 '벼랑설에 핀 꽃'이 간행되었다. 宋동문은 여

행을 통한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영동한 시어를 통해 투영해 내고 있는데 '벼랑설에 핀 꽃'은 한편강, 지리산 벤사풀, 북간도벌 용정리의 여행지를 중심으로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근대...' 출간

洪申善 동문

▲洪申善(70국문·수원대학교 교수) 동문이 문학이론서 '한국근대문학이론의 연구'를펴냈다.

'청소년비행론' 출간

李潤鎬 동문

▲李潤鎬(78경행·경기대학교 교수) 동문이 '한국청소년 비행론'을 출간했다.

현재 경기대학교 법정대학 교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송동균은 이전에서 현재 유력한 범죄이론들의 강점과 장점을 도출, 통합해낸으로써 한국적 청소년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못이루는 고민을 밝힐까 합니다.

매년 보내주시는 뜨거운 열망에도 불구하고 그에 보답하지 못한 것 같아 어떻게 하면 10만동국인 모두가 하나님되는 일간行事가 될까 목하고민중...

사무국의 모든 직원들이 분투노력하고 있는바 동문여러분이 지난해 애배서터호텔을 매화원 큰 협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광고협조 바랍니다.

○…을 한해 12면칼라로 발행되는 東友會報가 이번호 8면으로 축소되어 同門여러분들이 디소 의의에 할 듯 하기에 몇마다.

그동안 긍극한 물가오름세와 함께 지대의 상승과 우송료 인상등의 惡財속에서도 東友會報를 지탱하게 한 것을 전면광고의 위력에서 비롯.

同門여러분이 年1회씩만 광고를 의의해도 東友會報가 이번호로 발행될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 本동동동구 "애타게 공고스폰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東동국대동동창회동물직입

한해가 저듭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 어느덧 東國의 밤이 눈앞에 다가온 오늘 本동동동구 잠

"애타게 불러보는 광고여"

“白象빌딩 매입, 1억8천만원이 부족합니다”

그 출발선상인 오늘 저희사
무국은 백상빌딩 매입부족분
1억8천여만원의 모금운동을
개하기 위한 그 출발점이였기
때문입니다.

멀지 않은 훗날에 우리의
배들이 우리의 同窓會館을 갖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하엔 白
象빌딩의 3층매입이 最善이었
다고 믿어봅니다.

우리同窓會館을 갖기위한 同
門여러분의 뜨거운 열망에도
하였습니다.
동 소재 白象빌딩 3층을 매입
本會는 지난 10월 14일 인사

募金운동을
전개하며